

전국 작가 100명 광주서 평화의 꽃 피운다

5·18 38주년 '100인의 오월정신 릴레이 아트'



지난해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100인의 오월 정신 릴레이 아트' 행사 모습.

26일 5·18 옛 도청앞 민주광장서 화가·만화가 등 그림 100장 그려 시민들과 어울려 음식 나누기도

'2018 메이피플, 평화의 꽃이 피었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100명의 예술가들이 광주 금남로와 5·18민주광장에 모였다. 오월정신에 동의하는 예술가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밤늦게까지 그림과 만화를 그렸다. 마치 1980년 5월 10일간의 대동세상을 떠올리게하는 행사였고, 모두가 메이피플이 되는 '광주 정신의 예술파티'였다.

올해 5회 짝을 맞는 '100인의 오월정신 릴레이아트'가 오는 26일 옛 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펼쳐진다. 전국에서 모여든 100명의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길게그림 100장을 그리는 행사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올해는 13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1980년대는 거리에서 그렸던 그림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참여자들은 구 도청 분수대를 모여 '오월정신'을 주제로 다양한 그림을 그린다. 여기에 100명의 자원봉사자도 함께한다.

올해 주제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불바람에 실려온 평화의 꽃씨가 뿌리내려 예술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메이피플-평화의 꽃이 피었습니다.'로 정했다.

작가들은 오후 5시 18분부터 모여들기 시작해 7시부터 밤 12시까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 예정이다. '폴 하우스'로 유명한 순정만화가 원수연 작가를 비롯한 웹툰 작가와 만화가들, 그림책 '오늘은 오월 18일'의 서진선 작가 등 그림책 작가들, 그리고 한희원 작가를 비롯한 전국의 화가들이 함께

참여한다.

광장에는 광주 시민들이 준비한 밥상이 차려진다. 오월어머니들을 비롯한 광주 시민들이 주먹밥과 김치, 수육과 흥어, 막걸리, 통닭 등을 맛갈스런 솜씨로 차려내고 작가와 시민들이 함께 나누는다.

개막 퍼포먼스는 플래시 몹 '입을 위한 행진곡', 잡아트 프로젝트 MSG의 융복합예술퍼포먼스, 국근섭·박인수씨의 '한춤과 서예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또 시민참여프로그램으로 주리영·조성숙·주홍·한경숙 작가가 참여하는 '메이피플 토크', '나도 메이피플', '메이 피플, 칼라피플', '평화의 꽃길' 등이 마련돼 있다. 그밖에 다도체험, 카페 부스, 2018 릴레이 책방 등도 운영된다.

작품을 끝낸 화가들과 만화가들은 시민들의 캐리커처를 그려주면서 정답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무박2일로 밤을 보내며 다음날에는 5·18국립묘지 등을 참배할 예정이다. 이날 제작된 작품들은 5·18기념재단 갤러리에서 한 달 동안 전시된다.

올해 행사는 평화의 통일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2016년 한반도에는 전쟁위기가 감돌고 박근혜 정부는 전쟁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었다. 곧 전쟁이 터질 것만 같은 긴장감이 고조될 때 예술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했고 아트릴레이 참가자들은 '오월정신과 평화통일의 꿈'을 주제로 작업을 진행했다.

4·27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보며 '상상력의 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작가들은 2년 전 그림으로 그렸던 한반도 평화가 눈앞에 다가온 현실을 보며 100인의 오월정신 릴레이아트 행사가 평양의 광장에서 열리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오는 8월 미국 타임 스퀘어광장에서 5월 정신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펼칠 '잡아트프로젝트MSG'는 이날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현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10-6791-805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기획전 '묻고, 묻지 못한 이야기'

7월 31일까지

오월민중항쟁 추모

여성작가 3인 전시



윤세영 작 '엄마를 기다리는 너'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염미봉)은 오는 7월 31일까지 재단 내 8층 여성전시관에서 기획전 '묻고, 묻지 못한 이야기'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38년 전인 1980년 5월18일 광주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오월민중항쟁을 추모하는 자리다. 사진작가 문선희 씨와 회화작가 윤세영, 오진하 씨 등 3명의 여성작가들이 전시를 꾸렸다.

작가들은 아이들의 감각적인 기억을 통해 5·18이라는 거대사를 이념이나 정치적인 관점이 아닌 정서적인 관점에서 풀어냈다.

작가들이 특별히 아이들에게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들의 증언 속에는 당시 시민들의 용기와 희생 같은 숭고한 의지뿐 아니라 혼란, 불안, 공포, 분노 같은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들까지 여과 없이 드러나 있다.

실제로 문선희 작가는 당시 초등학생이던 아이들 80명을 인터뷰해 2년 전 책으로 엮은 바 있다. 그 중 30여 명의 이야기를 실제 어린이 목소리로 재연해내 이번 전시에서 들려준다. 또 문 작가는 아이들이 당시 살던 집 근처를 수없이 돌아다니며 동네 벽에 초점을 맞춰 셔터를 눌렀던 사진작품들을 내걸었다. 사진작품 속 담배라들은 세월의 흔적을 자연스럽게 머금으며 당시 5·18의 상황을 증언해준다.

윤세영 작가와 오진하 작가도 당시 인터뷰를 한 어린이가 돼 작품을 선보인다. 실제로 두 작가는 문 작가의 책 속에도 등장하는 당시 어린이들이다.



문선희 작 '두두두두'

1980년 5월 당시 7살이었던 윤 작가는 동생을 업고 일을 하러 나간 엄마를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경험을 작품화했다. 또 당시 11살이던 오 작가는 '모든 것이 가장 중심의 미세한 균열로부터 시작됐다'는 의미심장한 뜻을 작품에 담았다. 문의 062-670-0532.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美 리리 우드버리 무용단

'커넥팅 댄스모션' 공연

26일 문화전당 예술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브록클린 음악원,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 '커넥팅 댄스모션'(Connecting Dance Motion) 공연을 선보인다. 26일 오후 3시 ACC 예술극장 극장2.

"춤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리리 우드버리 무용단은 1964년 두 명의 유타 출신 여성 조안 우드버리와 셸리 리리가 1964년 설립했다. 이후 리리 우드버리는 지역 무용단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은 현대무용단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미국 및, 남아공,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서 공연과 교육에 힘쓰며 그들의 철학을 전파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지역내 예비 무용인들과의 워크숍을 통한 문화교류, 협업을 통해 이뤄질 예정



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번 공연에는 예벨 갈레고스, 메리 린 그레이브스, 메간 메카시, 다니엘 몬테딘, 바순 윌리엄스, 멜리사 운커 등이 등장하며 조선대학교 무용학과 학생들이 특별출연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재 전 세계에 만연하게 발생하는 무차

별적 살인에 대한 반응을 시적인 안무로 풀어낸 '엘리자', 친한 친구의 부재에서 오는 변화, 분노, 이해, 슬픔을 다룬 '살인의 반대', 움직임과 소리의 유기적인 결정을 라이브 포메이션 프로세스로 탐색하는 '인스트러' 등을 선보인다. 전시 무료. 문의 02-397-4751.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 예술인들 日 오이타현서 한·일 전통문화 교류 공연

광주 예술인들이 일본 오이타현에서 한·일 전통문화 교류공연을 펼친다.

오이타현에서 26일 개최되는 이번 한·일 전통문화 교류공연은 전통문화를 매개로 문화교류와 우호협력, 상호 문화 이해 정신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 오이타현 예술문화스포츠진흥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양 도시간 예술인 교류회 및 일본시민 대상 한국 역사·문화 강좌 개최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교류공연단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전통문

화예술가들로 꾸려졌으며 개성 넘치는 양국의 예술인들이 각기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금독주 청성자진한잎', '한국무용 부채산조', '일본무용 칠복신', '박종선류 아쟁산조', '고토·사쿠라치 상현의 노래',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오이타현전통문화 츠루사키 춤', '얕은반사 물놀이'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광주문화재단과 오이타현예술문화스포츠진흥재단은 지난 2012년부터 상호 문화발전을 위한 교류행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문의 062-670-7465.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한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일)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 ₩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료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객 50% DC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